

*** 사찰 정보박물관의 공간구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space organization of the SeongBo(聖寶)Museum's of The Buddhist Temple

박현정* / Park, Hyun-Jeong
김개천** / Kim, Kai-Chun

Abstract

It is a world wide tread for museums to become specialized museums emphasizing their characteristics, but Seongbo museums(museums that preserve Buddhist artifacts) are more general and show no specialization or characteriz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mphasize the special character of the Seongbo museum which manages and maintains sacred Buddhist cultural artifacts, and to understand the architectural characteristics of the building distribution and interior composition to implement a more systematic spatial composition plan. For our analysis we selected 6 currently operating museums as our subjects, and analyzed the characteristics of their spatial composition through their plans including the plot plans and ground plans. As a result, we found that most of them were small scale museums, and that the character and rank of each building changed according to its positioning. In terms of areas, the museums consisted of exhibition areas, storage areas, maintenance areas, and other miscellaneous areas and were lacking areas for research and education. It is necessary for these museums to possess facilities for managing these cultural artifacts as well as adequate exhibition and storage spaces.

Seongbo museums, which are connected with Buddhist temples, must possess differentiated preservation and maintenance methods unlike museums dealing with artifacts that need only be preserved, and must have an area plan suitable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various artifacts near and around the temple so as to help build our Buddhist cultural heritage in a systematic and continuous matter.

키워드 : 성보문화재, 사찰, 정보박물관
Keywords : Buddhist Cultural, Buddhist Temple, SeongBo(聖寶)Museum

1. 서론

1.1. 연구의 목적 및 의의

성보문화재는 단순히 문화유산이 아니라 현재 한국불교의 각 사찰에서 신앙의 대상으로 봉안되어 예배의 대상이 되고 있는 문화재가 많다. 이는 단순히 박물관에 전시되어 유물관을 찾는 사람들만이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법당을 참배하면 대할 수 있다. 이렇듯 성보문화재가 예배의 대상으로 사람들에게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 보니 도난, 유실된 우려를 염려해 건립되게 되었다. 그러나 정보박물관은 성보문화재의 관리와 보존뿐 아니라 사찰이 가진 특수한 환경에서 건립됨으

로써 일반 국.공립, 사립박물관과는 차별성을 보인다.

그러나 현재 건립된 정보박물관은 '불교'라는 종교적인 특수성과 '사찰'이라는 특정한 여건을 바탕으로 건립된 전문박물관으로서의 성격이 아닌 기존의 종합적 유물관과 특별한 차이가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재 건립된 정보박물관의 공간적 현황을 파악하여 정보박물관이 사찰 내에 어떠한 위치와 공간적 특성을 가지는지 알아보고 사찰마다 가진 역사와 유물이 공간에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분석하고 현재 제기되고 있는 정보박물관의 공간적 문제점들과 나름대로의 개선방향을 개진토록 할 것이다.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정보박물관의 이론적 고찰을 통해 개념 및 필요성과 정보박물관만의 특성을 알아본 후 그 중 공간구성에 필요한 요소들을 대다수 갖추고 있고 역사성이 있는 전라도와 경상도

* 정회원, 국민대학교 테크노디자인 전문대학원 실내디자인전공 석사과정
** 정회원, 국민대학교 실내디자인학과 부교수(교신저자, kck@kookmin.ac.kr)
*** 본 논문은 2007년 국민대학교 학술연구비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사찰 3개씩을 중심으로 6개를 선정하여, 대상박물관의 배치 유형과 전시공간과 수장공간 위주로 공간을 분석한 후 국외사례를 참고하여 문제점을 도출, 해결안을 모색하여 공간을 계획하는데 효율적인 방향을 제시 한다.

2. 성보박물관의 이론적 고찰

2.1. 성보와 성보박물관의 개념 및 목적

성보는 불교의 교리와 신앙에 기초하여 조형화된 예배의 대상 또는 교화활동이나 의식을 위해 발생, 전개된 표현물이다. 엄격히 말해 일반문화재와는 달리 성보는 예술성이나 역사성보다 종교성이 강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신앙의 대상을 지칭하며 불교문화재나 사찰문화재와는 달리 역사성에는 구애받지 않는다. 흔히 성보문화재, 사찰문화재, 불교문화재를 혼용하여 쓰는데 성보문화재는 성보를 문화적 차원에서 보려는 발상에서 비롯된 말이며, 사찰문화재는 현재 사찰에서 성보로서 그 기능을 다하고 있는 문화재를 말한다. 반면 불교 문화재는 사찰이 아닌 곳에 소장되어 있는 것도 포함함으로써 역사상, 예술상 가치가 큰 불교문화의 유산을 일컬으며 교단 외에서 사용하는 용어다. 불교문화재는 신앙대상으로서의 성보와 사찰에서 벗어난 것이라 할 수 있다. 성보는 어디까지나 종교적인 가치에 의해 판단할 대상이지 문화재 또는 세속적 가치로 치부할 대상은 아니다. 국가에서는 신앙차원이 아닌 민족 문화유산의 차원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이다.

성보는 원래 관리가 아닌 신앙 대상으로서 보존 전승되어 왔다. 아무리 국가적 문화재라 할지라도 성보이기 때문에 조성되고 보존되어 왔으며 전승될 것이므로 문화재 차원이 아닌 신앙의식 차원의 성보관리에 초점이 맞춰져야 할 것이다.¹⁾

성보박물관은 '불교'라는 종교적 특수성을 바탕으로 '사찰'이라는 성스럽고 제한적인 공간에 설립된 박물관으로 일반박물관의 기능은 물론 전문박물관으로서 특수성과 종교성까지도 포괄하는 특수한 기능을 가진다고 하겠다. 또한 성보박물관은 단지 해당사찰의 박물관이 아니라 일종의 특정지역이나 영역을 포괄하는 교구박물관의 역할을 하고 있다.

2.2. 성보박물관의 필요성

현재 국가지정 문화재는 국보 306건, 보물 1,392건이 지정되어 있는데 불교문화재가 국보 56%, 보물 66%에 이르고 있다.²⁾ 이처럼 우리나라는 전통문화재 중 불교문화재의 비중은 매우 높다. 일제강점기 이후 사회,정치적 요인으로 종단이 불안정한 자리매김으로 인해 성보의 상당수가 사찰을 떠나 미술품이나

관람의 대상으로 방치되고 있거나 골동품으로 거래되고 있다. 더구나 사찰에서 소장하고 있는 정보조차 관리부실에 있어 여러 문제점을 드러낸 바 있다. 1995년 발생한 순천 송광사의 16국사 진용(보물 제1043호) 도난사건은 성보박물관이 탄생하는 직접적인 계기로 작용하게 되었으며, 사회의 흐름도 차츰 그 중요성을 깨닫고 보존하고 관리하려는 의식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이에 정부는 박물관 건립 예산의 일부를 지원하게 되었으며, 올해 3월에 개관된 불교중앙박물관은 그 좋은 예이다.

<표 1> 도난된 성보문화재 현황

연도	지정문화재	비지정문화재	계	회수
1993	10	25	35	6
1994	0	13	13	4
1995	1	6	7	1
1996	2	14	16	3
1997	5	10	15	1
2000	0	34	34	14
2001	0	25	25	6
계	18	127	127	35

2.3. 성보박물관의 차별적 기능

문화재청은 현재 국가나 지방 자치단체에서 건립한 박물관과 대학박물관을 제외하고 모든 박물관을 사립박물관으로 분류하고 있다. 따라서 성보박물관 역시 사립박물관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다. 그러나 사립박물관은 개인기업이나 순수 개인이 설립한 박물관을 말하며, 소장유물 역시 개인의 수집품이나, 유품, 또는 재단이나 기업에서 수집한 유물이 중심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성격상 사찰 전래의 문화재가 주를 이루는 성보박물관과는 구별된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기에 전문적인 인력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프로그램 또한 활성화되지 않고 있어, 체계적으로 박물관을 건립하는데 있어서도 문제가 있다. 넓게 본다면 현재 국가소유로 되어 있는 불교문화재들은 소유사찰의 붕괴에 의해 국유화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현재 사찰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 문화재도 소유사찰의 보호와 관리능력을 상실할 경우 그 보존과 관리는 국가와 함께 나서야 할 것이다.³⁾

박물관이 수행하는 기능 중 핵심은 유물보존과 관리, 전시, 교육 및 연구이다. 이처럼 성보박물관의 기능도 어느 박물관과 동일한 기능을 가진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박물관과 다른 성보박물관 나름의 측면이 있다.⁴⁾

그렇다면, 성보박물관은 어떤 차별적 기능을 가지고 있는가?

첫째, 교구박물관으로서의 유물보존 및 관리기능이다.

유물 보존과 관리는 어느 박물관이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성보박물관은 여타 박물관과는 달리 그 업무 영역이 주로 박물관 안으로 한정되어 있지 않은 특성이

1)박상국, 성보관리의 기본, 직할사암주지스님연수교재, p.33-36, 1996, 대한불교조계종교육원

2)대한불교조계종총무원 불교문화재지정현황목록2002참고, 문화재청 지정 문화재총괄통계

3)법하 스님, 사찰박물관 활성화를 위한 제안, 사찰박물관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토론문., 2002, 대한불교조계종총무원

4)홍선, 사찰박물관의 현황과 과제, 성보 제4집, 조계종 총무원 2002, pp.91-92

있다. 현재까지 문을 열었거나 열 예정인 정보박물관은 대체로 교구별로 분산되어 있으며 해당 본사에 위치하고 있다. 즉 그 박물관이 단지 해당사찰의 박물관이 아니라 일종의 교구 박물관 구실을 하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유물의 보존과 관리는 단순히 박물관의 유물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교구 전체 사찰에 소장된 모든 유물까지를 포함한다는 점이 정보박물관의 고유의 특성이자 중요성을 일깨우는 측면이라 할 수 있다.

둘째, 종교체험(예배)의 공간으로서 전시기능이다.

보통박물관의 전시는 상설전시와 특별전시로 이루어지는데, 정보박물관도 그 점은 마찬가지다. 그러나 정보박물관에서는 일반박물관과는 달리 종교체험의 공간으로서 소장 유물의 종교적 특유성이 부각되는 전시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불교의 성보로서 가치를 지닌 모든 문화재를 전시되고 있는 것이 정보박물관 상설전시의 특징이며, 예술적 가치 뿐 아니라 종교적 예배의 대상으로서의 가치도 포괄하며 전시기능을 초월하여 제2의 예배공간으로서의 기능까지도 수반해야 한다. 즉 살아 있는 종교적 대상물로서 박물관 전시실을 운영한다는 점이 가장 독특할 것이다. 특별전시는 정보박물관의 특성과 장점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가령 2000년도에 통도사 정보박물관의 '불사리 신앙과 그 장엄' 특별전은 불교도들에게는 신앙심을 고취시키는 계기가 되었고 일반인에는 어떻게 신앙행위가 예술의 경지로 승화될 수 있는가를 보여준 뜻 깊은 전시라 할 수 있다.

또한 웬만큼 큰 박물관이라도 이렇게 다량의 불교문화재를 대어 전시할 수 없다는 점에서 볼 때 정보박물관만의 장점이 잘 드러난다. 이와 같은 각 정보박물관의 특성화는 일반 박물관과의 차이를 부각시킬 수 있는 정보박물관만의 조건이 된다.

셋째, 지역사회박물관으로서의 문화공간, 사회교육기능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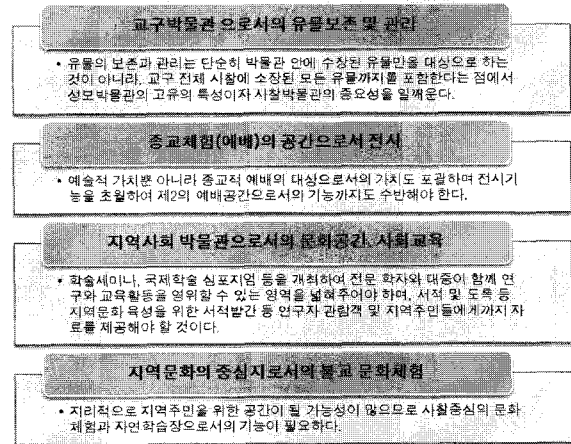
일반박물관에서는 박물관대학의 개설로서 일정수준의 교육을 마친 사람을 대상으로 문화유산 연구 관리와 교육활동을 하고 있다. 여기서 교육이라 함은 주로 사회교육을 말하는데 정보박물관의 교육적 기능은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앞으로 정보박물관은 학술세미나, 국제학술 심포지엄 등을 개최하여 전문 학자와 대중이 함께 연구와 교육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영역을 넓혀주어야 한다. 가령 월정사 정보박물관에서 개최한 '월정사 팔각구층석탑의 재조명' 세미나나 송광사 정보박물관에서 '송광사 소장 원대 티벳문 범지 문서 규명 국제 학술대회' 등은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지역문화의 중심지로서의 불교 문화체험기능이다.

많은 박물관들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문화체험 현장을 운영하고 있으나, 대부분 대도시에 편중되어 있어 수혜자는 대도시민으로 제한되어 있다. 이런 여건 속에 정보박물관은 지역문화의 중심지로 자리잡아 소도시나 시골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에게도 다양한 문화체험과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문화적 갈등

을 해소시킬 수 있다. 그 예로 통도사 정보 박물관의 불교문화 센터는 다양한 불교체험으로 그 역할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그 외 여가선용의 기회로 삼아 자연학습장으로서의 기능까지도 기대할 수 있게 한다.

<표 2> 정보박물관이 가지는 차별적 기능



3. 현황분석

3.1. 개관 시설현황

본 연구의 현황분석은 현재 정보박물관의 공간구성에 있어 문제점과 해결점을 도출해내기 위해 최근 주요 사찰에서 운영하고 있는 정보박물관의 시설현황을 점검해 보았다.

<표 3>과 같이 현황분석 결과, 대부분의 정보박물관들은 외형상으로는 문화재를 다룰 수 있는 모든 시설이 설비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예산상의 문제로 운영상 박물관의 필요 인력을 제대로 고용하고 있지 못해 시설을 관리하는데 있어 전문성이 떨어진다. 박물관이라면 적어도 유물들이 안전하고 최적의 상태로 관리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과 시설을 필히 구비해야 한다. 방화시설의 경우 특수 소화시설이 필요한데 일반 소

<표 3> 정보박물관 개관 시설현황

*수장고와 화재예방시설을 박물관의 기능에 맞는 것에 한함













사찰명	유물 현황	전문 인력	함은 시설	함습 시설	화재 예방 시설	도난 방지 시설	수장고 시설	사무실	자료실	강당
월정사	612점	○	○	○	○	○	○	○	○	○
수덕사	약 800건 300여점	○	○	○	○	○	○	○	○	○
적지사	2,224건 1,600여점	○	○	○	○	○	○	○	○	○
해인사	311건	○	○	○	○	○	○	○	○	○
향계사	74건 94점	×	○	○	○	○	○	○	○	○
통도사	35,498점	○	○	○	○	○	○	○	○	○
송광사	5,900여점	○	○	○	○	○	○	○	○	×
대원사	1,202점	○	×	×	×	×	×	×	×	×
대흥사	100여건	×	×	×	○	○	○	○	×	×
도갑사	100여점	×	○	○	○	○	○	○	×	×
흥국사	약 800여점	×	×	×	○	○	○	○	×	○
무위사	백화30여점	○	○	○	○	○	○	○	○	○

화시설을 갖추어 놓기도 하고, 향은. 향습시설의 경우 고가의 장비와 운영비 때문에 아예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설치되어 있더라도 가동되지 않거나 가끔씩 가동되는 경우가 많다.

3.2. 대상별 개요

본 연구는 위의 시설현황 도표를 바탕으로 공간구성에 필요한 요소들을 대다수 갖추고 있고 역사성이 있는 정보박물관 중 전라도와 경상도를 바탕으로 6개를 선정하여 알아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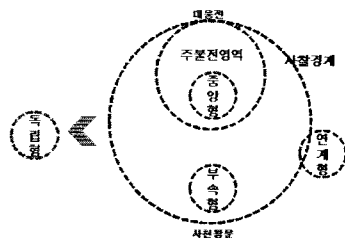
<표 4> 조사 대상 박물관 개요

대상 정보 박물관	도갑사 정보 박물관	무위사 정보 박물관	송광사 정보 박물관	쌍계사 정보 박물관	통도사 정보 박물관	해인사 정보 박물관
위치	전라남도 영암군	전라남도 강진군	전라남도 순천시	경상남도 하동군	경상남도 양산시	경상남도 합천군
규모	지상1층, 지하1층	지상1층, 지하1층	지상2층	지상 2층 지하 1층	지상 3층 지하1층	지상2층 지하1층
연면적	1000.0m ² (303평)	396.0m ² (120평)	508.2m ² (154평)	841.5m ² (255평)	4273.5m ² (1,295평)	3577.2m ² (1,082평)
개관년도	2001. 10	2006. 4	1997. 10	2002. 4	1999.4	2002.7
구조	목조	목조	목조	철근 콘크리트	철근 콘크리트	철근 콘크리트
지붕	맞배지붕	맞배지붕	우진각 지붕	팔작지붕	팔작지붕	반원형 지붕 / 동판마감
소장유물	100여점	벽화 30여점	5,900 여점	74건 94점	35,498점	311점
외관						
평면도						

3.3. 대상별 배치유형 및 공간구성 현황

(1) 배치 유형

정보박물관의 배치는 주불전과 진입하는 경내로 사천왕문을 기준으로 대웅전까지 원을 그려 사찰경계로 간주하고, 원 안쪽은 내부로, 원 밖은 외부로 분류하고, 주불전으로 출입하는 경우는 '중앙형'으로, 사찰 주 동선과 분리되면 '부속형'으로 분류하였고, 사찰외부에 위치하나 사찰경계와 가깝게 연계되어 있으면 '연계형'으로, 완전히 분리되어 독립 배치되어 있으면 '독립형'으로 구분하였다.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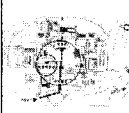




<그림 1> 배치 유형

5) 김진희, 사찰박물관의 건축계획적 특성에 관한 연구, 경상대학교 학위논문, 2007. p.57

분석 결과, 송광사의 경우 '중앙형'이라는 특이성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는 1995년 '16국사진영도난사건' 이후 사찰경내 중심으로 위치하게 되었다. 이후 송광사 내에서 박물관은 사찰배치에서 위계성이 높아졌다. 해인사의 경우는 예외로 '독립형'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본래 불교문화단지의 일부로 계획된 것이라 처음부터 외부로 배치되었기 때문에 박물관으로서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얻을 수 있었다.

<표 5> 대상 정보박물관의 배치유형 및 동선연결유형

위치	배치유형	동선연결	특성	해당 사찰정보박물관
내부	중앙형 	연결	정보박물관이 중요한 위계를 가지며, 주불전 앞마당에 여유공간이 있는 특수한 경우	송광사 정보박물관
	부속형 	연결 / 분리	정보박물관이 사찰의 전각으로 인식	무위사 정보박물관 도갑사 정보박물관 쌍계사 정보박물관
외부	연계형 	연결 / 분리	박물관으로서의 성격이 강하게 나타남	통도사 정보박물관
	독립형	분리	사찰과는 따로 독립되게 나타남	해인사 정보박물관

(2) 영역구성 및 관람 동선체계

조사 대상별 6개의 정보박물관 규모와 각 영역별 면적 및 소요비율을 조사 한 결과, 통도사 성불박물관과 해인사 성불박물관 외에 나머지는 교육영역과 조사연구영역이 없었으며 대부분 소규모 박물관으로 구성 되었다. 동선체계 역시 중간규모인 통도사 성불박물관과 해인사 성불박물관은 중앙홀 형식으로 관람하기 적당한 동선체계를 갖추고 있었고, 그 외 단조로운 관람 형식과 공간절약에 장점을 가진 연속순로형식을 가졌다.

(3) 주요공간구성의 현황

성불박물관은 전시와 수장기능에 있어 유물의 특성상 다른 역사계 전문박물관보다 주요한 기능을 필요로 한다. 조사결과 중규모박물관인 통도사와 해인사 외 교육, 연구영역을 갖춘 곳은 없었으며, 박물관의 최소공간인 전시공간과 수장공간 정도만을 갖춘 정도였다.

① 전시실

전시실은 대개 지상1층이나 지상2층을 이용하였고, 대부분 소규모박물관이므로 소형의 전시실을 여러 개로 나눠 작아지거나 통합되거나 하는 두 가지 형식으로 나타났고, 그 외 통도사나 해인사 성불박물관의 경우 4,5개의 전시실을 가지고 있어 다른 박물관보다 공간적으로 여유 있는 모습을 보였다. 내부공

간의 벽부장에는 대부분 탕화, 회화, 서예 등 소형유물들이 전시되고 있었고, 아일랜드 형식의 진열장에는 정보박물관의 중요 전시자료인 불상, 공예, 조각 등이 전시되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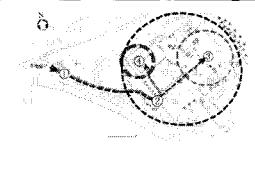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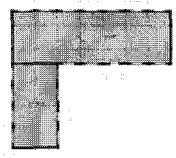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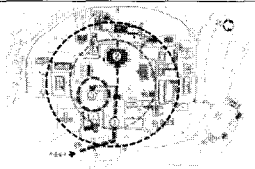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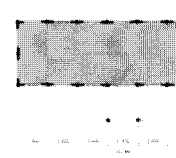

또한 패블이 전시된 통도사와 해인사 정보박물관의 경우 패블의 규모적 특성상 1,2층을 통 층으로 벽면을 이용해 전시하고 있었으며 충분한 관람공간을 확보하고 있었다. 그리고 통도사 정보박물관은 기획전시를 통해 여러 사찰의 패블이 순회전시를 하는 등 공간을 효과적으로 이용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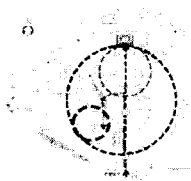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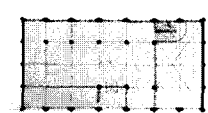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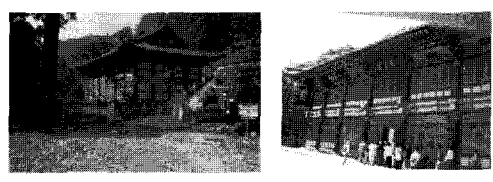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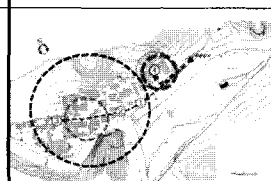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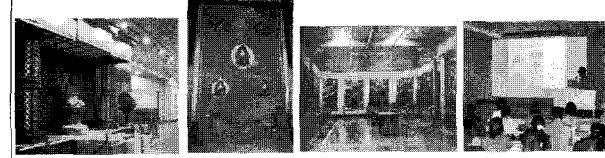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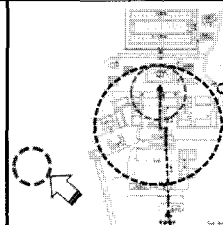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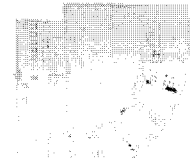

② 수장고

박물관의 수장고는 유물보관 및 정리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나 현재 소수의 사례를 제외하고는 수장고의 운영실태가 부실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조사결과 수장고는 대부분 지하에 있으며, 통도사와 해인사 정보박물관을 제외한 대부분이 방풍실, 향온 향습, 화재예방시설 등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못하고 최소한의 시설만 갖춘, 모양만 수장고 형태만 취하였다. 또한 수장고의 공간이 협소한

<표 6> 조사 대상별 배치 및 공간구성

대상박물관	배치도	평면도	내·외부전경					
도감사 정보박물관	 <p>주요건물 : ① 일주문 ② 사천왕문 ③ 대웅전 ④ 사찰박물관</p>							
				배치유형	영역구성 및 동선체계		공간현황(전시실, 수장시설)	
				<p>> 내부부속형(동선연결)</p> <p>사찰에 부속되는 유형으로 박물관의 배치는 사찰과 별개의 공간이 아닌 사찰의 일부로 배치되며, 주출입 동선과 연결.</p>	전체규모	1000㎡	지하1층 지상1층	<p>① 전시실: 100여평의 단층으로 구성, 도난방지 외 향온, 향습시설, 화재예방시설까지 설치. 또한 영상자료를 통해 관람할 수 있는 강당이 있으며, 도감사 전경과 조선국사와 관련된 미니어처 산악배치도가 갖춰져 있음.</p> <p>② 수장시설: 지하 수장고 내 제습설비 및 에어컨 설치. 공간은 협소. 내부마감은 목재이며 수장고 내에 유물을 정리해 놓을 수 있도록 선반을 설치.</p>
					영역구성	면적(㎡)	비율(%)	
					전시영역	333.0	33	
교육영역	99.0	10						
조사,연구영역	-	-						
수장영역	148.5	15						
관리 및 기타	422.5	42						
동선체계	연속순로형식							
무위사 정보박물관	 <p>주요건물 : ① 해탈문 ② 극락전 ③ 구 화보존각 ④ 사찰박물관</p>							
				배치유형	영역구성 및 동선체계		공간현황(전시실, 수장시설)	
				<p>> 내부 부속형 (동선연결)</p> <p>사찰에 부속되는 유형으로 박물관의 배치는 사찰과 별개의 공간이 아닌 사찰의 일부로 배치되며, 주출입 동선과 연결.</p>	전체규모	396.0㎡	지하1층 지상1층	<p>① 전시실: 정보박물관에 전시된 벽화는 1974년 극락보전 보수 과정에서 드러난 것으로 아미타불후불벽화를 비롯 아미타래연도와 석가여래설법도, 해수관음좌상도 등 모두 29점 보관. 2006년 4월에 벽화박물관으로 개관. 과학적 보관시설 따로 설치.</p> <p>② 수장시설: 수장고는 박물관 정면 쪽에서 보이지 않으며, 뒤쪽 건물 기초부분 안에 공간 그 안에 수장고 설비와 기타 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설계.</p>
					영역구성	면적(㎡)	비율(%)	
					전시영역	198.0	50	
교육영역	-	-						
조사,연구영역	-	-						
수장영역	72.6	18						
관리 및 기타	125.4	32						
동선체계	연속순로 형식							
송광사 정보박물관	 <p>주요건물 : ① 사천왕문 ② 대웅전 ③ 사찰박물관</p>							
				배치유형	영역구성 및 동선체계		공간현황(전시실, 수장시설)	
				<p>> 내부 중앙형 (동선연결)</p> <p>주불전영역인 사찰 경계의 등근 원을 중심으로 송광사박물관은 중앙형으로 주불전을 북측으로 남서측에 위치 1995년 16국사진영 도난사건으로 인해 경내 중심에 위치. 이는 사찰배치에 있어서 박물관의 위계성이 높은 특수성을 가진.</p>	전체규모	508.2㎡	지상2층	<p>① 전시실: 전시실 내에는 벽부장과 이동식 독립장을 이용해 전시. 벽부장에는 서화 유물을 중심으로 전시, 별도의 독립장에는 여러 종류의 성보문화재를 전시되고, 전시장 내 벽부장은 파티션을 이용해 벽체제작. 파티션 뒤쪽으로 벽부장을 넣어 진열. 단층으로만 구성된 전시장은 일반전과 특별전 전시가 다르게 같이 진행되며, 시대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 관람객에게 혼동을 줄 수 있어 전시 내 공간은 분할되어야 함.</p> <p>② 수장시설: 오동나무를 이용해 비단재와 보관장을 만들었고, 수장고 내에는 여러 성보문화재가 보관되고, 따로 보관중인 성보문화재가 많아 수압이 어려운 상태.</p>
					영역구성	면적(㎡)	비율(%)	
					전시영역	260.7	51	
교육영역	-	-						
조사,연구영역	-	-						
수장영역	204.6	40						
관리 및 기타	42.9	9						
동선체계	연속순로 형식							

대상박물관	배치도	평면도	내·외부전경																				
쌍계사 성보박물관	 주요건물 : ① 일주문 ② 사천왕문 ③ 대웅전 ④ 사찰박물관																						
	배치유형	영역구성 및 동선체계	공간현황(전시실,수장시설)																				
	> 내부 부속형 (동선분리) 사찰에 부속되는 유형으로 박물관의 배치는 사찰과 별개의 공간이 아닌 사찰의 일부로 배치되며, 다른 부속형보다 전각수가 많고 상호거리가 좁아 여유있는 진입부 공간에 영역을 확보하고 건립됨. 주출입구가 주출입 동선과 분리되어 독립영역에 배치.	<table border="1"> <tr> <td>전체규모</td> <td>841.5㎡</td> <td>지하1층 지상2층</td> </tr> <tr> <td>영역구성</td> <td>면적(㎡)</td> <td>비율(%)</td> </tr> <tr> <td>전시영역</td> <td>613.7</td> <td>73</td> </tr> <tr> <td>교육영역</td> <td>-</td> <td>-</td> </tr> <tr> <td>조사,연구영역</td> <td>-</td> <td>-</td> </tr> <tr> <td>수장영역</td> <td>75.9</td> <td>9</td> </tr> <tr> <td>관리 및 기타</td> <td>151.9</td> <td>18</td> </tr> </table>	전체규모	841.5㎡	지하1층 지상2층	영역구성	면적(㎡)	비율(%)	전시영역	613.7	73	교육영역	-	-	조사,연구영역	-	-	수장영역	75.9	9	관리 및 기타	151.9	18
전체규모	841.5㎡	지하1층 지상2층																					
영역구성	면적(㎡)	비율(%)																					
전시영역	613.7	73																					
교육영역	-	-																					
조사,연구영역	-	-																					
수장영역	75.9	9																					
관리 및 기타	151.9	18																					
동도사 성보박물관	 주요건물 : ① 일주문 ② 사천왕문 ③ 대웅전 ④ 사찰박물관																						
	배치유형	영역구성 및 동선체계	공간현황(전시실,수장시설)																				
	> 외부 연계형 (동선분리) 사찰경계에서 벗어나 독립되게 배치되어 박물관으로서 독립된 영역 확보. 주출입 동선과 별개의 동선을 가지고 있으며 앞마당이나 담장을 둠	<table border="1"> <tr> <td>전체규모</td> <td>4273.5㎡</td> <td>지하1층 지상3층</td> </tr> <tr> <td>영역구성</td> <td>면적(㎡)</td> <td>비율(%)</td> </tr> <tr> <td>전시영역</td> <td>1494.9</td> <td>35</td> </tr> <tr> <td>교육영역</td> <td>297</td> <td>7</td> </tr> <tr> <td>조사,연구영역</td> <td>128.7</td> <td>3</td> </tr> <tr> <td>수장영역</td> <td>214.5</td> <td>5</td> </tr> <tr> <td>관리 및 기타</td> <td>2138.4</td> <td>50</td> </tr> </table>	전체규모	4273.5㎡	지하1층 지상3층	영역구성	면적(㎡)	비율(%)	전시영역	1494.9	35	교육영역	297	7	조사,연구영역	128.7	3	수장영역	214.5	5	관리 및 기타	2138.4	50
전체규모	4273.5㎡	지하1층 지상3층																					
영역구성	면적(㎡)	비율(%)																					
전시영역	1494.9	35																					
교육영역	297	7																					
조사,연구영역	128.7	3																					
수장영역	214.5	5																					
관리 및 기타	2138.4	50																					
해인사 성보박물관	 주요건물 : ① 해탈문 ② 대웅보전																						
	배치유형	영역구성 및 동선체계	공간현황(전시실,수장시설)																				
	> 외부 독립형 (동선분리) 해인사 박물관은 원래 사찰박물관으로서 배치된 것이 아니라 불교문화단지의 일부로 사찰 외부에 계획된 것으로, 계획 단계부터 외부에 배치, 박물관으로 강한 독립성과 전문성을 가질수 있음. 전면 넓은 마당과 기존 사찰배치와의 관계성은 매우 낮음.	<table border="1"> <tr> <td>전체규모</td> <td>3577.2㎡</td> <td>지하1층 지상2층</td> </tr> <tr> <td>영역구성</td> <td>면적(㎡)</td> <td>비율(%)</td> </tr> <tr> <td>전시영역</td> <td>1999.8</td> <td>56</td> </tr> <tr> <td>교육영역</td> <td>217.7</td> <td>6</td> </tr> <tr> <td>조사,연구영역</td> <td>145</td> <td>4</td> </tr> <tr> <td>수장영역</td> <td>204.9</td> <td>6</td> </tr> <tr> <td>관리 및 기타</td> <td>1009.9</td> <td>28</td> </tr> </table>	전체규모	3577.2㎡	지하1층 지상2층	영역구성	면적(㎡)	비율(%)	전시영역	1999.8	56	교육영역	217.7	6	조사,연구영역	145	4	수장영역	204.9	6	관리 및 기타	1009.9	28
전체규모	3577.2㎡	지하1층 지상2층																					
영역구성	면적(㎡)	비율(%)																					
전시영역	1999.8	56																					
교육영역	217.7	6																					
조사,연구영역	145	4																					
수장영역	204.9	6																					
관리 및 기타	1009.9	28																					

관계로 모든 유물들이 뻥뻥하게 모여 있거나 향은, 향습시설이 없어 타 전각에 보관하고 있었다.

4. 국외 사례 분석

역사적인 종교시설들에서 전래된 성물 및 유물을 보존, 전시하기 위한 성보박물관의 건립은 아시아지역 만이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광범위하게 발생하는 상황이다. 이미 중국과 일본에서는 성보박물관이 종교적, 관광적, 시설학적 가치와 유물보존

적 측면에의 인식이 우리보다 안정되어 있다.

국외사례 선정기준은 종교적 특성이 우리나라와 비슷한 중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공간적으로 차별화된 특성이 강하게 드러난 정보박물관 세 곳을 정해 사찰과의 연계성이 공간으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알아보고, 박물관이 어떻게 차별화되고 있는지에 대해 정리해보았다. 이들 모두 아직 정보박물관이 전문 박물관이 아닌 종합박물관으로서의 성격이 강한 우리나라의 정보박물관과 비교될 수 있을 만한 사례라 생각한다.

(1) 법문사(法門寺) 박물관, 중국 시안

법문사(法門寺)는 기원 7세기부터 10세기 중국 당나라시기의 황실 사찰이다. 당나라 멸망이후 잊혀졌던 법문사(法門寺)가 부각되기 시작한 것은 지진으로 탑이 무너져 1,100년 동안이나 닫혀 있던 지하 궁이 발견되면서부터이다. 그때 발견된 부처님 손가락뼈 진신 사리 외 금·은기으로 된 도자기, 유리로 된 자기, 건축물, 축천무후의 자수 등 당나라의 왕성했던 예술의 세계를 들여다 볼 수 있는 귀중한 문물이 1,000여 점이나 발굴되었다. 법문사(法門寺) 박물관은 전체 33966m²에 건축면적 3591m²으로 당나라 건축형식을 가지고 있으며, 크게 3부분으로 역사문화청, 사리문화청, 대당지궁(大唐地宮) 진보(珍保)청이 있다. 역사문화청은 법문사(法門寺) 역사연혁을 중심으로 법문사(法門寺)의 역사연혁과 지궁(地宮)을 발견했을 때의 상황을 재현하였고, 사리문화청은 팔층보함, 오층보함등 4개의 계열 사리함을 중심으로, 부처님의 진신사리와 당나라 밀교사상을 바탕으로 한 전시를 하였다. 대당지궁(大唐地宮)진보(珍保)청은 법문사(法門寺) 지궁(地宮) 황실이 모시는 100 여건의 당나라 문화재들을 전시하였다. 박물관은 법문사(法門寺)사찰 왼쪽에 가장 넓은 공간으로 사찰의 주요위치에 자리하고 있으며, 탑 또한 박물관 앞에 있음으로 보아 사찰은 박물관을 중심으로 공간 구성이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정리하면 중국 법문사 박물관은 지하궁의 보물과 부처님의 사리 등으로 사찰과 지하궁, 박물관이 공간적으로 서로 연계되어 사찰과 정보유물의 역사적 특성을 잘 살려 전시함으로써 공간적으로 차별화된 특성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2) 대종사(大鐘寺) 고종(古鐘)박물관, 중국 북경

대종사(大鐘寺)의 원래 이름은 각생사(覺生寺)로, 청 융정(雍正) 11년(1733년)에 지었다. 대종사는 산문, 천왕전(天王殿), 대웅옥전(大雄屋殿), 관음보살전, 장경루(藏經樓)등 6개의 전각으로 세워졌으며, 북경에 현존하는 청대 사찰 중 비교적 규모가 크고 완성된 사찰 중 하나이다. 대종사(大鐘寺)고종(古鐘)박물관은 1985년10월 설립, 44225m²의 장방형모양으로 중국 내에 현재 유일하게 종(鐘)을 보관하며 전시하며 연구하는 박물관이기도 하다. 유물인 고종(古鐘)은 약 400여건 이 보관되며, 그중 가장 유명한 것이 영락대종(永樂大鐘; 무게만 46톤, 종의 부에는 23만자에 달하는 불경이 새겨짐)이 있다. 이는 명 성조

(成祖)시기 주체(6)가 명의 수도를 남경에서 북경으로 천도하면서 주조하였다고 한다.

대종사 박물관은 영락대종(永樂大鐘)이 있는 대종루(大鐘樓)를 비롯해 종의 역사전시실 부터, 불교 종(鐘), 외국 종(鐘)박물관까지 다양하게 채로 분리되어 보관 전시되어 있다. 대종사 박물관은 지역의 상황과 특성에 맞는 전문화된 고종(古鐘)박물관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었다.

(3) 법룡사 보물관 (法隆寺, Horyu Temple) , 일본 동경

나라현에 있는 호류사(법룡사, 法隆寺)는 나라시대의 7대 사찰 중의 하나로 쇼토쿠[聖德]가 601~607년에 세웠으며 현존하는 일본 최고(最古)의 목조건물이다. 법룡사 보물관은 비록 사찰과 인접해 있지 않고, 1999년 동경국립박물관에 건립되었으나 1978년에 황실에 헌납된 호류지(법룡사)의 보물들이 319건이나 소장. 기증되어 이를 위해 많은 불교문화재를 개별적으로 전시한 것이 특징이다. 요시오 다니구치가 설계한 법룡사 보물관은 지상3층, 연면적 4,031m²로 구성되었으며, 외부에 인공호수를 설치해 자연스럽게 진입동선을 유도하였으며, 절제있게 지어져 재료와 부재 에서도 그 마음가짐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고 있다. 또한 6개의 전시시설 중 매일 24시간의 공조운전을 실시하고 있는 유일한 시설이며, 약 300건의 수장품에 대해 각각이 특별한 배려가 되어있다.

법룡사 보물관은 사찰내에 입지하지 않았지만 나라에서 직접 운용에 참여하여 법룡사의 기증받은 보물을 유물이 가진 각각의 특성에 알맞게 전시를 하고 있었고, 현대적 건축으로 지어졌지만 건축적 미학도 고려하여 설계되었을 뿐 아니라 필요한 제반시설이나 운영에 필요한 전문 프로그램 들 또한 공간내에 잘 적용되어 관람하기 적당한 환경과 공간적 여유를 가지고 있었다.

5. 결론 및 방향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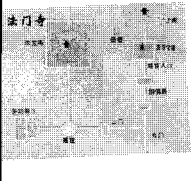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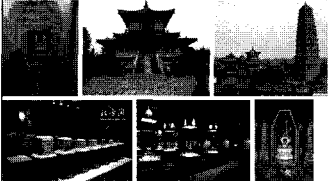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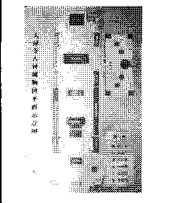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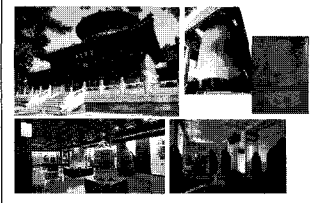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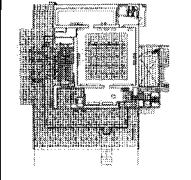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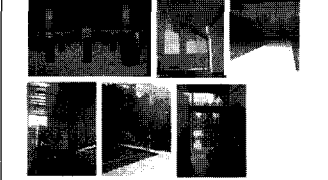
정보박물관은 사찰이 보유하고 있는 보물급 유물을 포함하여 현재 사찰내에 각 전각과 예배상으로 봉안되는 불상과 불화, 탑상 일체의 모든 조형물을 관리 할 수 있는 중심적인 기구이다. 이는 '불교'라는 종교적인 특수성과 '사찰'이라는 특정한 여건을 바탕으로 건립되어 정보박물관이 전문박물관으로서 보다 진보적인 기능과 역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상 분석한 결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찰에 입지한 사찰박물관의 배치 유형에 따라 박물관의 성격과 위계가 달라진다. 통도사와 해인사박물관처럼 사찰 외부로 동선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 사찰과 독립된 성격의 박물관으로서의

6)주체는 명조 개국 황제인 주원장의 네번째 아들로, 전설에 의하면 황위를 얻기 위해 적지 않은 살생을 하였다 한다. 그래서 인지 꿈 속에 귀신들이 나타나 그를 괴롭혔고, 그는 귀신들을 달래기 위해 세상의 모든 병기를 모아 영락대종을 주조하였다 한다.

<표 7> 국외 박물관 사례 분석

대상 박물관	평면도	내·외부 전경	공간 특성
법문사 (法門寺) 박물관 / 중국 시안			법문사 박물관은 경내의 진신보탑아래 지하통로를 통해 부러짐 진신사리가 전시되어 있는 지하공이 위치하고, 사원옆 탑 전면에 성보박물관이 1.2층으로 크게 자리잡아 지하공의 유물들이 전시되고 있으며, 내부는 크게 세부분으로 나뉘며 유물은 벽면과 중앙전시공간을 이용해 차례로 전시되었다. 중국 법문사 박물관은 지하공의 보물과 부처님의 사리 등으로 사찰과 지하공, 박물관이 공간적으로 서로 연계되어 문화재의 특성을 잘 살려 전시함으로써 공간적으로 차별화된 특성을 가진다.
대종사 (大鐘寺) 박물관 / 중국 북경			대종사(大鐘寺) 고종(古鐘)박물관은 사찰 전체가 고종의 역사유물관이라 볼 수 있다. 장방형모양으로 중국 내에 현재 유일하게 종(鐘)을 보관하며 전시하며 영락대종(永樂大鐘)이 있는 대종루(大鐘樓)를 비롯해 종의 역사전시실 부터, 불교 종(鐘), 외국 종(鐘)박물관까지 다양하게 채로 분리되어 보관 전시되어 있다. 대종사 박물관은 지역의 상황과 특성에 맞는 전문화된 고종(古鐘)박물관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었다.
법륭사 (法隆寺) 박물관 / 일본 동경			법륭사 박물관은 비록 사찰내에 입지하지 않았지만 나라에서 직접 운영에 참여하여 법륭사의 기초받은 보물을 유물이 가진 각각의 특성에 알맞게 전시를 하고 있었고, 현대적 건축으로 지어졌지만 건축적 미학도 고려하여 설계되었을 뿐 아니라 필요한 제반시설이나 운영에 필요한 전문 프로그램 들 또한 공간내에 잘 적용되어 관람하기 적당한 환경과 공간적 여유를 가지고 있었다.

위계가 지어지고 있었다. 동선체계 또한 중앙홀 형식으로 중심부에 하나의 큰 홀을 두고 그 주위에 전시실을 배치하여 자유롭게 출입하게 하였다. 이는 대개 시설이나 규모가 어느정도 있는 박물관이 해당되었다. 반면 내부에 부속형인 경우 박물관의 배치가 사찰의 일부로 연결되며 대개 연속 순회 형식으로 공간을 절약 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나 지루하고 피곤한 동선체계를 보였다.

둘째, 규모 또한 통도사와 해인사 성보박물관 외 대부분 연면적 1,000m² 이하, 지하1, 지상1, 2층 정도의 소규모 박물관이다. 소규모 박물관일수록 해당지역의 문화재와 프로그램 연계를 통해 지역사회박물관으로서의 제 역할을 해야 하며, 자기

특성에 맞는 특정한 영역을 개척하여 전문화, 특성화된 공간이 계획되어야 한다. 아직 불교전문박물관으로서 특성화된 박물관은 통도사와 무위사박물관 정도이고, 대부분 서로의 기능이 중복되어 박물관끼리의 상승효과를 바랄 수가 없다.

셋째, 공간은 크게 전시영역, 수장영역, 관리 및 기타영역으로 나타나며 그 외 사회교육영역, 연구영역 등이 추가되었으나, 교육 및 연구부문이 부실한 상황으로 불교전문박물관으로서의 조건을 갖추려면 우선적으로 같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전시실은 하나의 공간 안에 복합된 문화재가 전시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가령 대형불화와 불상 또는 목판, 경전같이 보존성질이 다른 것들은 따로 편하게 감상할 수 있을만한 전시공간과 보존시설 등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수장실의 경우 1.2층에 위치하는 것이 이상적이나 다수가 지하에 배치 되어있어 수장고의 습기 피해가 염려되고 있다.

네째, 향은. 향습시설, 방범시설, 방화시설 등 기본적인 시설 조차 미비한 실정인 곳이 대부분이다. 성보문화재는 단순히 보

존되는 문화재와는 달리 해당 사찰의 성보유물의 특성에 맞는 만족스런 보존과학시설과 함께 전시공간구성이 계획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성보박물관만의 차별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박물관 건물자체도 하나의 문화유산으로 생각하고 건축의 상징적인 부분과 더불어 단지 유물을 보관하는 수장고와 전시기능을 초월하여, 예술적 가치 뿐 아니라 예배의 대상으로서의 가치까지도 포괄하는 제2의 종교체험과 예배공간으로까지 자리매김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박상국, 성보관리의 기본, 직할사암 주지스님연수교재, 1996
2. 총무원, 불교문화재지정현황목록, 문화재청 지정 문화재 총괄통계, 2002
3. 총무원, 성보문화재 지정현황보고서, 1997
4. 홍선, 사찰박물관의 현황과 과제, 성보제4집, 조계종 총무원, 2002
5. 법하, 사찰박물관 활성화를 위한 제안, 성보제4집, 조계종 총무원, 2002
6. 차재성, 전문박물관 건축계획에 관한 고찰; 과학박물관, 단국대학교 석사논문, 2005
7. 정승모, 박물관의 특성과 건립. 운영의 문제점, 불교와 문화 7.8호 통권제 53호, 불교진흥원 2003
8. 김진희, 사찰박물관의 건축계획적 특성에 관한 연구, 경상대학교 학위논문, 2007

<접수 : 2007. 10. 31>